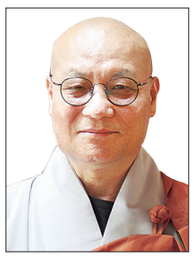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기획
⑥ 38대 집행부에 바란다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기후·생태위기는 눈앞에 피해가 즉각적으로 드러나기보다 서서히 누적되므로 다른 현안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나기 쉽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전 세계적 문제로 떠오른 지금은 이를 종단 핵심 종책으로 설정하고 중장기 기본 계획을 마련할 때다.

조계종은 2006년 ‘불교환경의제21’을 선언했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점검할 실질적인 체계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갈 기반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조계종 사회부와 환경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총괄 체계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2045’ 로드맵을 비롯해 녹색사찰, 재생에너지 전환, 사찰림 보호 등을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종단이 관리하는 사찰림을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공익적 자산으로 바라보고, 국가보전 자산(자연공존지역) 등재 등 사찰림 보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 문명이 가져올 생태적 영향에 대응하는 불교적 환경 윤리도 정립해 나가길 기대한다.

“다문화 아이들의 울타리 되길”

한국다문화불교연합회장 담마끼띠 스님



다문화 인구 300만 시대다. 이주민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다문화 아이’로 구분되고 배제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교육과 경쟁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불교계가 먼저 안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차기 집행부는 다문화 아이들을 위한 종단 차원의 장학 제도를 마련하고, 일회성 사업을 넘어 최소 10년 이상 학업과 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장기 종책을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른 교육과 생활 돌봄을 연계하고, 다문화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 조성을 위해 ‘대안학교’ 설립과 같은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은 아이들에게 불교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을 심어주고, 장기적으로는 신행과 불교 인재 양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차기 집행부는 이들의 성장 과정을 함께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

“신도조직 활성화로 결속력 강화”

정원주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재가불자들을 대표해 제38대 집행부에 바라는 점은 무엇보다 선거 과정에서 비롯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사부대중의 화합과 소통을 통해 종단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더불어 승가와 재가가 서로의 역할과 뜻을 존중하며 한국불교의 중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종단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또한 교구신도회와 신도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전국의 불자들이 더욱 조직적으로 결속하고 포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이를 바탕으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실질적인 포교 종책을 통해 한국불교의 새로운 활로를 열어가기를 기대한다.

중앙신도회 역시 종단을 외호하는 재가불자 대표조직으로서 제38대 집행부와 함께 사부대중의 화합과 한국불교의 발전과 중흥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

“포교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강의수 조계종 포교사단장



포교사단은 선명상·수행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문 지도 인력’ 육성 지원 확대를 요청한다. 종단 표준 선명상 및 수행 프로그램이 군부대, 병원, 교도소, 지역사회 등 전법 현장에 신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포교 대상 정예 연수 과정을 정례화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불교문화해설, 불교의례 등 현장 맞춤형 재교육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포교사의 전문성을 높여주길 바란다.

디지털·AI 포교 인프라 구축 및 포교부와의 실천적 파트너십 강화에 힘써주길 바란다. 총무원 포교부와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일선 포교 현장의 목소리가 종단 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주길 당부드린다.

종단 행정이 교구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각 지역 교구본사와 지역 포교사단이 실질적인 전법의 중심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연계 지원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 지역 현장 특성에 맞는 자율적이고 원활한 포교 활동의 기틀을 마련해주길 부탁한다.

포교사 위상 제고 및 지속가능한 인재 양성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 자발적인 원력으로 사회 음지 곳곳에서 전법과 봉사를 실천하는 포교사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종단에서 세심하게 살펴주길 바란다.

“‘사무량심 실천’ 전법 종책 구현”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



그동안 대학생 전법은 사찰과 불교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방식으로 젊은 세대와 만나왔다. 청년들이 받아들이는 가르침은, 자신이 꿈꾸는 세상에 얼마나 합치하는가가 중요하다. 이제는 ‘대학생 전법 2.0’을 할 때다.

그 중심에는 ‘사무량심(四無量心)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 사무량심은 개인의 마음 다스림에서 출발하지만, 그 본질은 타인과 공동체를 향해 확장되는 성격을 갖는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차별·불공정에 대한 문제의식, 공동체를 위한 참여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미 체화돼 있고 불교적 가치와도 연결된다.

오늘의 대학생들이 불교에 기대하는 것은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하는 위안만이 아니다. 차별과 불공정을 마주한 이들에게 “마음을 편안히 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을 너무 모르는 소리다. 그들은 불교가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어떻게 힘을 보태 줄 것인지를 묻는다.

차기 집행부는 ‘불교를 알려주는 전법’에서 ‘불교와 함께 아픈 세상을 바꿔나가는 전법’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학생들이 지역사회 봉사, 환경, 인권, 돌봄 등 사회적 의제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사무량심을 경험하도록 지원하길 기대한다.

“생애주기 맞는 포교 필요”

이길수 대한불교청년회장



최근 불교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젊은 세대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관심을 얻고 있다. 그러나 불교에 대한 문화적 관심이 곧 청년불자로서의 지속적인 신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첫 만남이 정기적인 법회와 교육, 수행과 봉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과 지속가능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새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기에 앞서 전국 사찰과 청년회의 현실을 살피고, 청년회가 사라지는 이유와 현장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청년포교를 일회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종단 정책으로 세우고, 단기·중기·장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단기적으로는 전국 청년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청년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교육·운영 등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중기적으로는 지역별 청년불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며, 직장·결혼·육아 등 생애주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청년이 포교정책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정책 수립과 실행에 직접 참여해 수행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신행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청년이 불교 안에 머물며 인연을 맺고 함께 성장하는 불교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종단의 안정적인 지원 요청”

선민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최근 불교가 청년들에게 힙(Hip)하고 핫(Hot)해진 것은 불교가 보여준 탈권위적이며 모범적인 모습과 청년들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힘이 됐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청년 전법 활성화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보다 많은 대학생 청년들의 삶 속에 불교가 함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종단의 인적·물적 지원이 제도적인 틀 속에서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무엇보다 대학생들이 일상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불교를 처음 만날 수 있는 대학교 내 불교동아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또한 불교의 역할이 청년 마음 치유에서 나아가 주거, 취업 등 일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청년층에게 하나의 트렌드이자 소비문화로서 인식되고 있는 불교가 앞으로는 청년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쉬운 불교, 일상과 가까운 불교로서의 프로그램과 내용을 갖춰 가면 좋겠다.

앞으로도 불교가 청년들의 몸과 마음의 위안과 안식이 되며 그들이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기를 바란다.

“차별 없이 수행하는 불교공동체”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모든 불자가 평등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변화를 만들어 주기를 서원한다.

첫째, 사찰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기본적인 수준은 돼 있으나, 실질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다.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경사로와 장애인 화장실, 안전한 이동 통로를 설치해 휠체어를 타는 이들이 제약 없이 법당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길 바란다.

둘째, 실질적인 수행과 신행, 포교가 이뤄지도록 살펴줬으면 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 자료,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과 자막,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불교 교육 등 장애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돌봄이 마련돼야 누구나 깊이 있게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장애 불자 당사자들이 직접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행 프로그램과 소통 창구를 만들어 주길 바란다. 종책을 세울 때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 불자들을 중심에 둔 것처럼 장애인 분야도 그 범위에 넣어 장애 불자들의 포교를 활성화를 요청한다.

넷째, 장애 불자를 일방적인 시혜 대상이 아닌 신행과 포교의 주체로 바라봐달라. 장애 불자들이 자신의 재능으로 사찰과 사회에 봉사하고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우리가 찾아 헤맨 인생의 답은 모두 고전 안에 있다!

천년의 세월에도 녹슬지 않는 인생 스승들의 지혜 한 구절

인생을 먼저 살아간 불교 스승들이 우리에게 남긴 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천년의 지혜

이진영 지음 | 320쪽 | 18,000원

마음에 새긴 문장이 바뀌면 내 인생도 바뀐다!

나를 다스리는 법부터
사람과 세상을 대하는 기준까지,
복잡한 삶의 문제를 꿰뚫는
한 줄의 통찰

“사는 게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한 줄 인생 수업”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리즈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경전 구절
이진영 엮음, 무비·원철·정목 감수 | 296쪽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선문답
장응연 지음, 도법·원철·신규탁 감수 | 232쪽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절집 말씀
목경찬 지음 | 304쪽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